



견문 확대 및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아 산 시
【총 무 과】

전문 확대 및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2019~2021년에 선정된 기피부서 중 2년 이상 근무 직원에 해외 선진지 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확대 및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I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022. 9. 26.(월)~2022. 10. 4.(화) *7박 9일
- 출장목적: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전문 확대 및 직무 전문성 제고
- 방문국가: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 출 장 자: 총 10명(인솔자 1명 포함)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성별	비고
1	허가담당관	시설6급	양태진	남	
2	허가담당관	시설8급	김준형	남	
3	징수과	행정6급	이성우	남	
4	총무과	행정7급	이현주	여	인솔자
5	여성복지과	복지7급	박은정	여	
6	공원녹지과	녹지6급	남상미	여	
7	공동주택과	시설6급	이홍익	남	
8	보건행정과	간호6급	이숙자	여	
9	보건행정과	보건6급	최은정	여	
10	감사위원회	시설7급	김민아	여	

□ 세부 일정

일시	일정	비고
9.26.(월)	인천→부다페스트 출국	
05:00	아산시청 집결	
08:05~13:50	인천(08:05)→부다페스트(13:50)	LO2002편 (12시간 45분, 직항)
14:30~	부다페스트→마리보르 이동 및 숙소 체크인 후 휴식	
9.27.(화)	슬로베니아 블레드 섬 및 블레드 성 방문	
09:00~12:00	플레트나 보트 탑승하여 블레드 섬 방문	
12:00~13:00	중식	
13:00~16:00	블레드 성 방문	
16:00~	블레드→크란 이동 및 숙소 체크인 후 휴식	
9.28.(수)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방문	
09:30	류블라나 시내 관광지 방문 -도살자의 다리, 류블라나 성, 프레세르노보 광장 등	
12:00~13:00	중식	
13:00~17:00	포스토이나 동굴 방문	
17:00~	포스토이나→세자냐 이동 및 숙소 체크인 후 휴식	
9.29.(목)	크로아티아 리예카,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 방문	
09:00~12:00	리예카 이동 및 관광지 방문 -시계탑, 자드란스키 광장, 성 비트 대성당	
12:00~13:00	중식	
13:00~17:00	플리트비체 이동 및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 방문	
17:00~	플리트비체→네트레크 이동 및 숙소 체크인 후 휴식	
9.30.(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방문	
09:00~12:00	자그레브 이동 후 대성당 방문	
12:00~13:00	중식	
13:00~17:00	자그레브 시내 방문 -자그레브 대성당, 실연 박물관, 반 엘라치치 광장 등	
17:00~	숙소 체크인 후 휴식	
10.1.(토)	헝가리 티하니 마을 방문	
09:00~12:00	크로아티아→부다페스트 이동	
12:00~13:00	중식	
13:00~16:00	티하니 마을 및 발라톤 호수 방문	
16:00~18:00	부다페스트 이동 및 숙소 체크인 후 휴식	
10.2.(일)	헝가리 쉐텐드레 및 부다페스트 방문	
09:00~12:00	쉐텐드레 방문	
12:00~13:00	중식	
13:00~17:00	부다페스트 대성당 및 어부의 요새 방문	
17:00~	석식 후 휴식	
10.3.(월)	부다페스트→인천 입국	
09:00~12:00	체크아웃 후 영웅 광장 방문	
12:00~13:00	중식	
13:00~16:00	부다페스트 공항 이동 및 입국 수속	
16:00~09:40	부다페스트(16:00)→인천(09:40, 10월 4일)	LO2001편 (10시간 40분, 직항)
10.4.(화)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1. 슬로베니아

□ 국가 현황

- 국가명: 슬로베니아(Slovenia)
- 수 도: 류블라나(Ljubljana)
- 면 적: 204만 8천ha
- 인 구: 211만 9,844명
- 위 치: 남동유럽의 발칸반도 북쪽 끝, 오스트리아 남쪽에 위치



□ 방문 목적

- 슬로베니아 유명 관광지인 블레드 섬 및 블레드 성, 그리고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라냐를 방문하여 관광지로서의 특이점 및 특산품 등을 살펴보고, 이를 아산시에 접목시켜 시의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방문 장소

1. 블레드 섬

- 방문일시: 2022. 9. 27.(화) 09:00~
- 위 치: 슬로베니아, 블레드(Lake Bled, Bled Slovenia)
- 가는 법: 선착장에서 플레트나 보트 또는 전기 보트를 타고 이동

○ 소개 및 특징



- 블레드 섬은 고대 슬라브에서 생명과 풍요의 여신인 지바(Ziva)의 신전이 세워져 있던 곳으로, 신전이 세워졌던 장소에 기독교도들이 신전을 허물고 현재의 성모 승천 교회(Pilgrimage Church of the Assumption of Maria)를 세웠으며, 1509년과 17세기 지진 피해 이후 바로크와 고딕 양식으로 재건축된 것이 오늘날의 건물이다.
- 선착장에서 내려 99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성당에 이르는데, 신랑이 신부를 안고 이 99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어 유럽의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많이 올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시사점>

- 내륙에서 직접 손으로 움직이는 보트를 타고 섬으로 이동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우리 시 신정호에도 이런 점을 접목하여 이러한 **보트투어**가 생긴다면 아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어,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또한 성당 앞의 99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처럼, 아산시에서 구전되어 오는 속설이나 설화 등을 관광지와 접목시킨다면 관광지로서 인기도 높아질 것이라고 사료됨.

○ 방문 사진



블레드 섬 성당



플레트나 호수 보트



성당 앞 99개의 계단



플레트나 보트

2. 블레드 성

- 방문일시: 2022. 9. 27.(화) 13:00~
- 위 치: 슬로베니아, 블레드(Blejski Grad, Bled Slovenia)
- 소개 및 특징



- 블레드 성은 알부인 주교가 1011년에 방어목적으로 지은 성으로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다. 블레드 성에 올라가면 블레드 호수 및 마을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슬로베니아에서 꼭 가볼 만한 곳이다.
- 내부에는 블레드 성 박물관(Muzej na Blejskem Gradu)과 레스토랑, 카페가 있어 관광객들이 블레드 호수의 전망을 관람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다.

<시사점>

-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폐허로 남을 수 있는 문화유산을 인근 호수 및 좋은 전망으로 관광 컨셉을 잡아 레스토랑 등으로 잘 활용한 사례라고 판단됨.

- 추후 신정호 아트밸리도 블레드 성의 박물관 및 기념품관처럼 아산시
시의 역사적 유물 및 기념품을 같이 판매한다면 아산시를 더욱 홍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방문 사진



블레드 성에서 바라본 전경



블레드 성 외부



블레드 성 내부 박물관 유물 전시



블레드 성 내부 기념품관

3. 류블라나

○ 방문일시: 2022. 9. 28.(수) 09:30~

○ 위 치: 슬로베니아, 류블라나(Ljubljana, Slovenia)

○ 소개 및 특징

- 류블라나는 슬로베니아의 수도로, 동유럽 국가 중 치안이 안전한 편이고 시차는 한국보다 8시간 느리다. 류블라나의 주요 관광지로는 류블라나 성, 세 개의 다리, 프레세르노보 광장, 프란치스카 성당, 보드니코브 광장, 도살자의 다리 등이 있다.
- 류블라나 성에 올라가면 류블라나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류블라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반드시 필수로 들려야 하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광장에서 매일 새벽마다 벼룩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각종 과일 및 꽃, 생필품, 관광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오전 시간대에 방문해보는 것도 관광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1) 류블라나 성

○ 소개 및 특징



- 마치 요새처럼 숲에 둘러싸인 류블라나 성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 전망을 한눈에 담기 좋은 곳이다. 이 성은 실제로 11세기에 요새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했으나 15세기에 이르러 축조와 보수를 거쳐 성으로 재건되었다.
- 현재는 다양한 문화 행사나 결혼식, 예배당, 전망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성 안에는 전시실, 레스토랑, 상점 등 하나의 마을이 조성된 듯 알차게 꾸며져 있다. 전면이 유리로 된 푸니쿨라를 타고 2분 안에 오를 수 있어 그 자체로도 즐거운 체험이 될 수 있다.

2) 도살자의 다리

○ 소개 및 특징



- 1930년에 설계되어 2010년에 완공된 신식 다리다. 바닥의 일부가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며, 난간 곳곳엔 프로메테우스, 사티로스 등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을 담은 조각상이 놓여있고, 그 아래에는 사랑을 약속하는 자물쇠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곳에서 한국 드라마 <흑기사>의 남녀 주인공이 운명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3) 프레세르노보 광장

○ 소개 및 특징



- 류블라나 구시가지 중심 광장으로 류블라나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크고 작은 공연이 펼쳐지는 곳이다. 광장 중앙에는 17세기 후반에 지어진 분홍빛 프란치스카 성당(Franciskanska Cerkev)이 있다. 광장 한 쪽에는 류블라나의 국민 시인 프란체 프레세렌(France Preseren)이 황금 나뭇가지를 들고 있다.

<시사점>

- 류블라나 성 내부에 카페가 잘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휴식을 쉽게 취할 수 있어 좋았고, 기념품 가게 또한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산시의 관광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도살자의 다리는 자물쇠가 많이 달려있는 것이 마치 서울의 남산타워와 비슷한 느낌이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의 문화유산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점에서 시의 관광명소에 적용할만하다고 생각함.

- 프레셰르노보 광장은 큰 시가지에 있는 프레세렌 동상에 관한 설화가 있어 흥미로웠고, 이러한 역사적 인물을 활용하여 시 관광지에 동상을 세우면 관광명소로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함.

○ 방문 사진



류블랴나 성



도살자의 다리



프레셰르노보 광장 내 프레세렌 동상



프레셰르노보 광장 내 프란치스카 성당

2. 크로아티아

□ 국가 현황

- 국가명: 크로아티아(Croatia)
- 수 도: 자그레브(Zagreb)
- 면 적: 880만 7천ha
- 인 구: 403만 358명
- 위 치: 지중해(아드리아 해)와 접한 발칸반도 서북쪽, 동남유럽 위치



□ 방문 목적

- 크로아티아 유명 관광지인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 및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 등을 방문하여 관광지로서의 특이점 및 특산품 등을 살펴보고, 이를 아산시에 접목시켜 시의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방문 장소

1.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

- 방문일시: 2022. 9. 29.(목) 14:00~
- 위 치: 오토차츠, 크로아티아(Otocac, Croatia)
- 특이사항: 영화 <아바타> 배경에 영감을 줄 정도로 아름다운 세계 문화유산

○ 소개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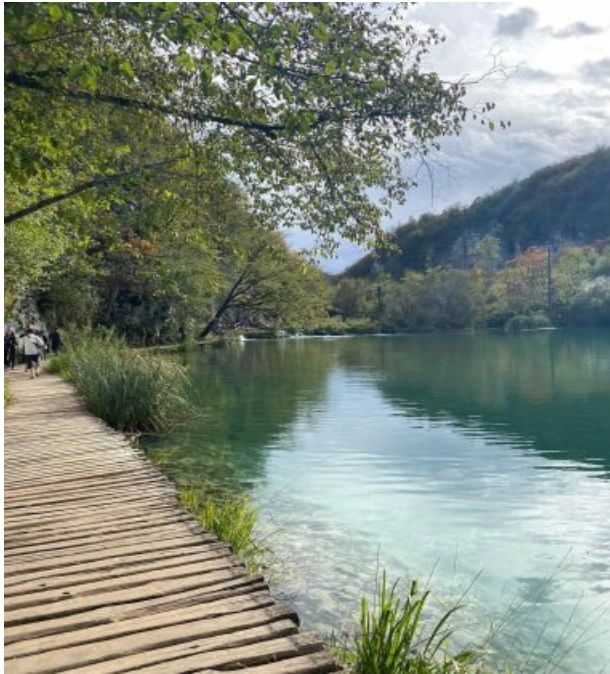
- 플리트비체는 1949년 개장한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의 국립공원이다. 공원 안에는 16개의 호수와 크고 작은 폭포 90여 개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석회암과 백악 위로 흐른 물이 석회 침전물을 쌓아 형성된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이를 둘러싼 원시림이 일품이다. 너도밤나무부터 신생대의 소나무, 가문비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숲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다.
- 또한 늑대, 유라시아 큰 곰을 비롯한 포유류부터 매, 물총새, 수리부엉이 등 120종 이상의 조류가 플리트비체에 서식하고 있어, 이러한 지질학적·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9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시사점>

-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여 관광지로서 활용하였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아산시도 아산만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또한 플리트비체 호수에 전기 보트를 타고 관광할 수 있는 작은 정박항이 여러 군데에 있어, 아산시 신정호도 보트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방문 사진



플리트비체 호수 전경



플리트비체 호수 전경



플리트비체 호수 트래킹 길



플리트비체 호수 관광용 보트

2. 자그레브

- 방문일시: 2022. 9. 30.(금) 09:00~
- 위 치: 자그레브, 크로아티아(Zagreb, Croatia)
- 소개 및 특징



-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수도로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크로아티아 교통의 허브이자 산업과 연구의 중심이다. 크로아티아의 거의 모든 정부기구가 자그레브에 있으며, 인구는 크로아티아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나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어 사용이 가능하며,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단일 화폐인 쿠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자그레브는 매년 1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으로,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 가까운 유럽 국가에서도 많이 방문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에서도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명 관광지로는 성 마르코 성당, 실연 박물관, 자그레브 대성당, 반 엘라치치 광장 등이 있다.

1) 자그레브 대성당

○ 소개 및 특징



- 자그레브 대성당은 독보적인 웅장함을 자랑하는 성모 승천상을 마주할 수 있는 크로아티아의 가장 큰 성당 건축물이다. 최대 5,000명이 한 번에 예배를 볼 수 있으며, 123년 동안 건축한 끝에 완공이 된 성당이다. 대지진 등으로 인해 성당 복원 당시 예전의 것과 동일하게 복원하지 못하여 쌍둥이 첨탑의 높이가 약간 달라졌다고 한다.
-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바로크 양식의 제단, 신고딕 양식의 제단 등이 있고 성당에만 보물급 유물이 10개 이상이 되어 크로아티아의 보물이라고 불리고 있다.

2) 실연 박물관

○ 소개 및 특징



- 자그레브 내에는 특이한 박물관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 가장 특이한 곳이라고 할 만한 곳이다. 실연이라는 독특한 주제 때문에 가장 인기있는 박물관 중 하나이며,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어 더욱 관람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박물관은 사람들로부터 기증 받은 물건과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실제 커플인 드라젠 그루비식과 올린카 비스티카가 4년의 열애 후 이별을 추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박물관으로, 2011년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박물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3) 스톤 게이트

○ 소개 및 특징



- 반 엘라치치 광장에서 북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작은 터널이 나오는데, 이 터널에는 다른 터널과 다르게 작은 예배당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간을 마주보고 있는 곳이 바로 돌의 문이다. 돌의 문은 중세시대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나뉘주는 기준점이 되었던 곳인데, 사실 돌의 문은 성지 순례지로도 유명하기도 하다. 최초 건축된 1266년 이후 수 차례 화재가 있었는데, 1731년 화재에서는 모든 것이 불타고 성모마리아 그림만 무사했다고 한다. 그 때 살아남은 성모마리아 그림은 철문으로 감싸 보존되어 있다.

4) 반 엘라치치 광장

○ 소개 및 특징



- 자그레브 관광의 중심인 이곳은 자그레브의 첫인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광장 중앙에는 광장 이름의 주인공인 반 요시프 엘라치치 동상이 자리한다. 반 엘라치치의 경우 184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당시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앞장서서 싸운 인물이다. 크로아티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광장의 명칭이 공화국 광장으로 변경됐으나, 1911년 내전 이후 크로아티아가 독립하여 예전 이름을 되찾아 현재까지 반 엘라치치 광장으로 불린다. 이곳은 자그레브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가장 많은 야외공연이 이루어지는 문화 복합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시사점>

- 자그레브 시내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역사적인 장소, 종교적 장소, 독특한 박물관 등이 위치하여 도보로 모두 방문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방문 코스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관광지를 한꺼번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실연 박물관’으로,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박물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것처럼 아산시만의 개성을 살린 특별한 박물관 등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방문 사진



자그레브 대성당 및 성모승천 동상



실연 박물관



스톤 게이트 안 성모마리아 그림



반 엘라치치 광장 내 반 엘라치치 동상

3. 헝가리

□ 국가 현황

- 국가명: 헝가리(Hungary)
- 수 도: 부다페스트(Budapest)
- 면 적: 930만 3천ha
- 인 구: 996만 7,308명
- 위 치: 유럽의 중앙 동부, 도나우강 중류에 위치한 내륙국



□ 방문 목적

- 헝가리 유명 관광지인 티하니 마을 및 발라톤 호수,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등을 방문하여 관광지로서의 특이점 및 특산품 등을 살펴보고, 이를 아산시에 접목시켜 시의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방문 장소

1. 티하니 마을

- 방문일시: 2022. 10. 1.(토) 13:00~
- 위 치: 티하니, 헝가리(Tihany, Hungary)

○ 소개 및 특징



- 헝가리 베스프렘 주에 있는 발라톤 호수의 북부, 티하니 반도에 위치한 마을이며 티하니 반도 자체가 역사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2년에는 헝가리 최초의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마을 중심부에는 서기 1055년에 지어진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 수도원인 티하니 수도원(Tihany Abbey)이 있으며, 수도원에 있는 두 개의 탑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발라톤 호수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티하니 수도원은 1754년에 바로크 양식으로 교회가 재건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역사,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

2. 부다페스트

- 방문일시: 2022. 10. 2.(일) 13:00~
- 위 치: 부다페스트, 헝가리(Budapest, Hungary)
- 소개 및 특징



-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의 수도로, 도나우강 양안에 걸쳐 있다. 부다페스트는 우안의 부다(Buda)와 좌안의 페스트(Pest)로 이루어져 있으며 1873년 부다와 페스트가 통합되어 오늘날 알려진 부다페스트로 탄생했다. 관광도시로 널리 알려진 부다페스트는 매년 44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도나우 강을 따라 헝가리 국회의사당, 마차시 성당, 어부의 요새, 세체니 다리 등의 주요 유적들을 볼 수 있다. 또한 100개가 넘는 온천도 중요한 관광 자원 중 하나로, 세체니 온천, 루다스 온천 등이 대표적이다.

1) 마차시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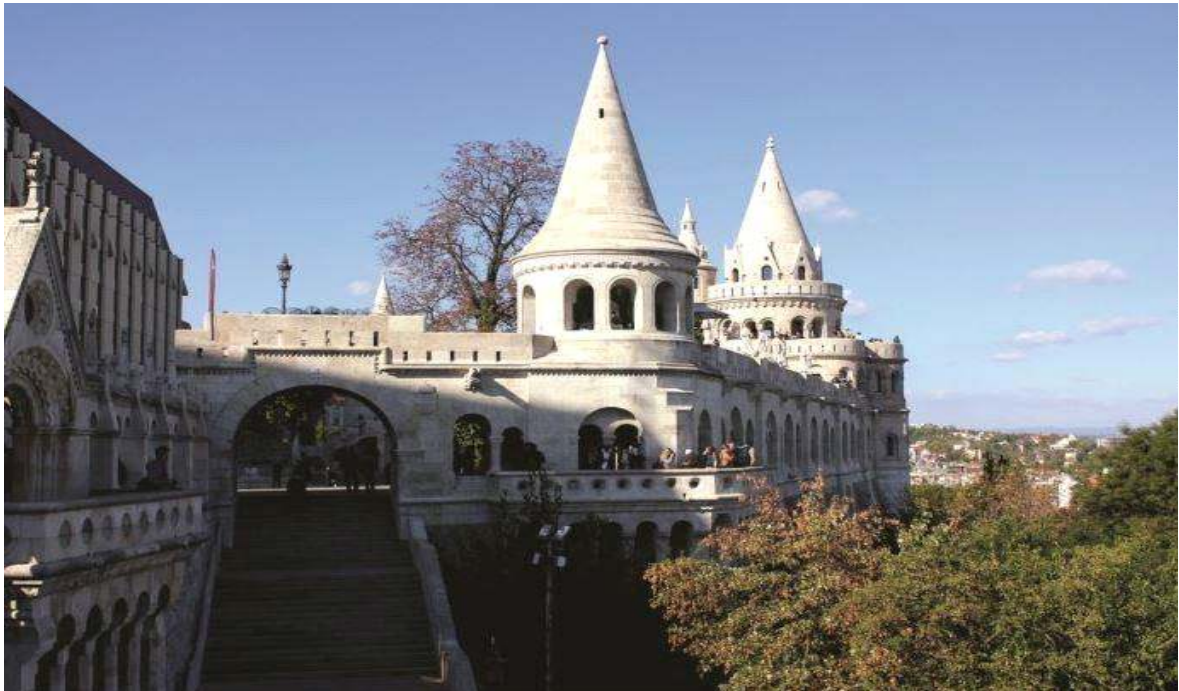
○ 소개 및 특징



-마차시 성당은 독특한 모자이크 지붕을 가지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성모마리아 대성당이다. 1269년 벨러 4세 왕에 의해 초기 고딕 양식으로 처음 지어졌고, 15세기 마차시 1세 왕에 의해 성당의 첨탑이 증축되면서 이곳의 남쪽 탑에 마차시 1세 왕가의 문장과 그의 머리카락이 보관되면서 그의 이름이 성당에 붙여졌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역대 왕들의 대관식이 거행되던 곳인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당이다.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와 프레스코화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으며, 성당 옆에는 성 이슈트반 1세의 기마상이 있다.

2) 어부의 요새

○ 소개 및 특징



- 어부의 요새는 마차시 성당을 보호하기 위해 19세기 후반에 축조된 성곽으로, 중세시대부터 이 부근에 어부들이 많이 살았으며 큰 어시장이 있었다고 한다. 헝가리 국민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왕궁을 수호하고 있을 때 이 성채는 어부들이 지켰다고 하여 붙여지게 된 이름이다. 네오 고딕 양식과 네오 로마네스크 양식이 혼합되어 독특한 모양의 뿔족탑을 가지고 있다. 어부의 요새 위에 올라가려면 입장료

가 필요하지만,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페스트 지구의 전경이 매우 아름답다고 한다.

- 요새의 가파른 계단과 포석이 깔린 테라스, 원뿔 모양의 탑은 모두 새하얀 석회암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교회 건축물의 보석처럼 새로 복원한 이 건물을 자랑하고 고딕 양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해가 진 이후부터는 무료로 도시의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3) 헝가리 국회의사당

○ 소개 및 특징



- 헝가리 국회의사당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회의사당으로,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 시절 거대했던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네오 고딕 양식의 큰 규모로 지어졌다. 1896년 이곳에서 처음 국회가 열렸으며 1902년에 건물이 모두 완성되었다. 강을 따라 이어진 건물의 길이만 268m에 이르며, 가운데 돔 위의 첨탑 높이는 96m에 달한다. 이 96이라는 숫자는 마자르 민족이 유럽에 최초로 정착한 896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는 낮에 내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월요일 오후와 화요일 오전에는 본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고 한다.

4) 영웅 광장

○ 소개 및 특징



- 영웅 광장은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1896년에 지어진 광장이다. 광장 중앙에는 36m 높이의 기둥이 있는데, 꼭대기에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조각상이 있다. 기둥 옆에는 마자르의 7개 부족장들의 동상이 있다. 이 기둥을 기준으로 반원의 형태로 주랑이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곳에는 헝가리의 역대 왕과 영웅들이 연대순으로 조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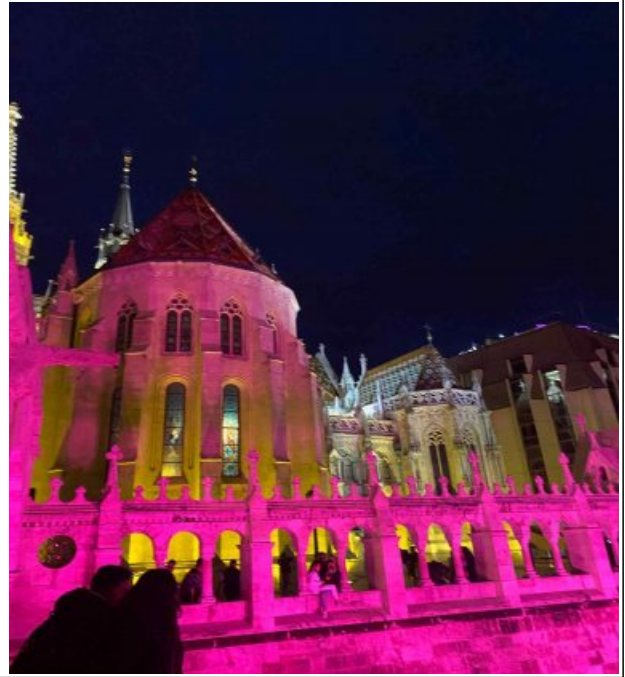
<시사점>

- 헝가리의 웅장하고 멋진 역사적 유물들과 스토리텔링이 합쳐져 관광객들에게 더욱 흥미를 끄는 요소로써 작용한다고 생각됨. 또한 이러한 역사적 유물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관광객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요소를 개발하면 관광상품 개발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헝가리는 또한 야경으로도 세계적인 유명세가 있어, 아산시도 야경을 이용한 관광상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방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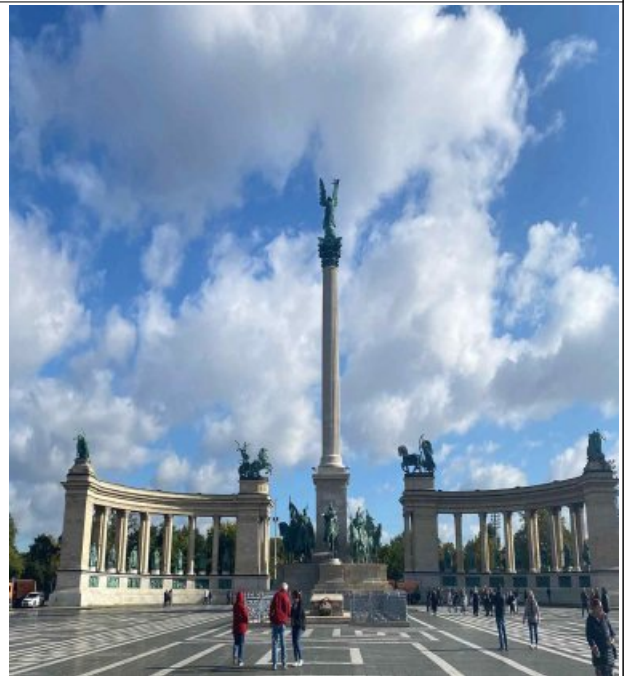
마차시 성당 외부



어부의 요새 야경



국회의사당 야경



영웅 광장